

건강하고 품격있는 '알프스 녹차 밥상' 드세요

'정소암의 찻잎마술' 최치원 활용 식사·차등 메뉴 개발



정소암의 찻잎마술' 별천지점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우리나라 차 시배지 하동 화개동에서 명품 하동녹차와 시(詩) '호리병 속의 별천지'로 유명한 고운 최치원을 활용한 '알프스 녹차 밥상'이 선보여 눈길을 끈다.

12일 하동군 화개면에 따르면 용강마을 '정소암의 찻잎마술(대표 정소암)'이 최근 녹차 등을 식재료로 '알프스 녹차 밥상'을 개발해 지역민은 물론 하동을 찾는 관광객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찻잎마술이 내놓은 녹차 밥상은 담백한 맛이 일품인 '고운비빔밥', 고운 선생의 시 '호중별유천'에서 착안한 '별천지점', 녹차 소스와 표고버섯을 활용한 '토끼봉 달빛', 매화와 토종매실을 결합한 '하동느낌' 등 4가지. 먼저 고운비빔밥은 통일신라시

대 지리산 화개골에 머문 고운 최치원 선생이 초근목피(草根木皮)를 먹고 살았을 모습을 상상하며 만든 담백한 비빔밥이다.

이 비빔밥은 통들깨·재철푸른채소·우영조림·무나물·도토리묵가루 등 계절별로 다르게 들어가는 재료에 녹차씨앗과 청국장으로 담근 집 간장을 비벼 먹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별천지점은 '동쪽 나라 화개동을 속세를 떠난 별천지와 같다'라는 한 고운 선생의 시를 활용해 만든 메뉴로, 통삼겹살에 녹차소스와

찾잎을 넣어 조리 짬뽕으로 달콤 짭짤한 풍미가 일품이다.

토끼봉 달빛은 5월 중순이면 새벽 4시에 달빛을 보며 토끼봉으로 봄나물을 뜯으러 간 화개사람들을 떠올리며 만든 메뉴로, 녹차 소스와 녹차 오일에 표고버섯을 구워 마늘과 곁들여 먹는 고소한 추억의 표고버섯 덮밥이다.

마지막으로 하동느낌은 6월 말 수확한 토종매실을 녹차꽃 효소에 담가 한밤 위에 올린 매실 초밥으로, 와사비 대신 들어간 녹차스프레드와 매실의 궁합이 잘 어울려 상큼한 맛을 내는 별식이다.

찻잎마술은 4종의 메뉴 외에 광양채철소가 생기기 전 남해바다에서 많이 생산된 해우(김의 사투리)에다 새우와 땅속에 묻어 둔 밤을

썪어 넣어 먹었던 해우국(감국)에 착안해 뜨거운 국물을 원하는 고객을 위한 추천메뉴로 '어화동동 해우국'을 개발해 선보이고 있다.

그리고 정소암 대표가 바람, 강물, 풍경에 반해 섬진강 백리길을 걷다가 생각해 낸 메뉴로, '섬진강 명물' 재첩을 재료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재첩 사브사브 '섬진강 알츠'도 내놨다.

정소암 대표는 "화개동은 시진평 중국 국가주석이 고운 최치원 선생의 시 '호중별유천'을 인용할 정도로 고운 선생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차가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된 만큼 이를 먹거리로 상품화하고자 녹차 밥상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26.6 X 10.5 cm

경남매일

하동군 '알프스 녹차 밥상' 눈길

'정소암의 찻잎마술'

녹차 활용한 메뉴 개발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차 시배지 하동군 화개동에서 '알프스 녹차 밥상'이 선보여 눈길을 끈다.

12일 하동군 화개면에 따르면 용강마을 '정소암의 찻잎마술(대표 정소암)'이 최근 녹차 등을 식재료로 '알프스 녹차 밥상'을 개발해 지역민은 물론 하동을 찾는 관광객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찻잎마술이 내놓은 녹차 밥상은 담백한 맛이 일품인 '고운비빔밥', 고운 선생의 시 '호중별유천'에서 착안한 '별

천지점', 녹차 소스와 표고버섯을 활용한 '토끼봉 달빛', 매화와 토종매실을 결합한 '하동느낌' 등 4가지.

먼저 고운비빔밥은 통일신라시대 지리산 화개골에 머문 고운 최치원 선생이 초근목피(草根木皮)를 먹고 살았을 모습을 상상하며 만든 담백한 비빔밥이다.

이 비빔밥은 통들깨·재철푸른채소·우영조림·무나물·도토리묵가루 등 계절별로 다르게 들어가는 재료에 녹차씨앗과 청국장으로 담근 집 간장을 비벼 먹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별천지점은 '동쪽 나라 화개동을 속세를 떠난 별천지와 같다'라는 한 고운 선생의 시를 활용해 만든 메뉴로, 통삼



하동군 화개골 '정소암의 찻잎마술'이 개발한 '알프스 녹차 밥상'.

겹살에 녹차소스와 찻잎을 넣어 조리 짬뽕으로 달콤 짭짤한 풍미가 일품이다.

토끼봉 달빛은 5월 중순이면 새벽 4시에 달빛을 보며 토끼봉으로 봄나물을 뜯으러 간 화개사람들을 떠올리며 만든 메뉴로, 녹차 소스와 녹차 오일에 표고버섯을 구워 마늘과 곁들여 먹는

고소한 추억의 표고버섯 덮밥이다.

마지막으로 하동느낌은 6월 말 수확한 토종매실을 녹차꽃 효소에 담가 흰 밥 위에 올린 매실 초밥으로, 와사비 대신 들어간 녹차스프레드와 매실의 궁합이 잘 어울려 상큼한 맛을 내는 별식이다.

이문석 기자

23.1 X 9.1 cm

하동군 화개골 '정소암의 찻잎마술'

녹차 · 최치원 활용 식사 · 차 등 메뉴 개발 선택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우리나라 차 시배지 하동 화개동에서 명품 하동 녹차와 시(詩) '호리병 속의 별천지'로 유명한 고운 최치원을 활용한 '알프스 녹차 밥상'이 선보여 눈길을 끈다.

12일 하동군 화개면에 따르면 용강마을 '정소암의 찻잎마술(대표 정소암)'이 최근 녹차 등을 식재료로 '알프스 녹차 밥상'을 개발해 지역민은 물론 하동을 찾는 관광객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찻잎마술이 내놓은 녹차 밥상은 담백한 맛이 일품인 '고운비빔밥', 고운 선생의 시 '호중별유현'에서 착안한 '별천지찜', 녹차 소스와 표고버섯을 활용한 '토끼봉 달빛', 매화와 토종매실을 결합한 '하동느낌' 등 4가지.

먼저 고운비빔밥은 통일신라시대 지리산 화개골에 머문 고운 최치원 선생이 초근목피(草根木皮)를 먹고 삼았을 모습을 상상하며 만든 담백한 비빔밥이다.

이 비빔밥은 통들깨·제철푸른채소·우영조림·무나물·도토리묵가루 등 계절별로 다르게 들어가는 재료에 녹차씨앗과 청국장으로 담근 집 간장을 비벼 먹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별천지찜은 '동쪽 나라 화개동을 속세를 떠난 별천지와 같다'라는 한 고운 선생의 시를 활용해 만든 메뉴로, 통삼겹살에 녹차소스와 찻잎을 넣어 조리된 찜으로 달콤 짭짤한 풍미가 일품이다.

토끼봉 달빛은 5월 중순이면 새벽 4시에 달빛을 보며 토끼봉으로 봄나물을 뜯으러 간 화개사람들을 떠올리며 만든 메뉴로, 녹차 소스와 녹차 오일에 표고버섯을 구어 마늘과 곁들여 먹는 고소한 추억의 표고버섯 달걀이다.

마지막으로 하동느낌은 6월 말 수확한 토종매실을 녹차꽃 효소에 담가 흰밥 위에 올린 매실 초밥으로, 외사비 대신 들어간 녹차스프레드와 매실의 궁합이 잘 어울려 상큼한 맛을 내는 별식이다.

찻잎마술은 4종의 메뉴 외에 광양제철소가 생기기 전 남해바다에서 많이 생산된 해우(김의 사투리)에다



새우와 땅속에 묻어 둔 밤을 깎아 넣어 먹었던 해우국(김국)에 착안해 뜨거운 국물을 원하는 고객을 위한 추천메뉴로 '어화둥둥 해우국'을 개발해 선보이고 있다.

그리고 정소암 대표가 바람, 강물, 풍경에 반해 섬진강 배리길을 걷다가 생각해 낸 메뉴로, '섬진강 명물' 재첩을 재료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재첩 사브샤브 '섬진강 알츠'도 내놨다.

이들 식사메뉴는 모두 녹차를 활용한 차꽃 와인과 차씨 오일, 차꽃진이 함께 제공되며, 식사 후 개인취향에 따라 손뽀찜차, 전통찜살, 백차, 차공차, 유지찜살 등의 차류도 셀프로 즐길 수 있다.

찻잎마술은 녹차 음식과 차류 외에 차꽃을 숙성한 와인, 차씨를 추출한 오일, 아름다운 녹차꽃에서 추출한 꿀 차꽃진(차꽃眞), 3년을 숙성시킨 녹차꽃으로 만든 천연발효 차꽃 식초도 개발해 판매한다.

정소암 대표는 "화개동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고운 최치원 선생의 시 '호중별유현'을 인용할 정도로 고운 선생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차가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된 만큼 이를 먹거리로 상품화하고자 녹차 밥상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김삼열기자 sykim@sidaeilbo.co.kr

15.5 X 18.1 cm

건강하고 품격있는 ‘알프스 녹차 밥상’ 드세요

하동 화개골 ‘정소암의 찻잎마술’ 녹차·최치원 활용 식사·차 등 메뉴 선봬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우리나라 차 시배지 하동 화개동에서 명품 하동녹차와 시(詩) ‘호리병 속의 별천지’로 유명한 고운 최치원을 활용한 ‘알프스 녹차 밥상’이 선보여 눈길을 끈다.

12일 하동군 화개면에 따르면 용강마을 ‘정소암의 찻잎마술’이 최근 녹차 등을 식재료로 ‘알프스 녹차 밥상’을 개발해 지역민은 물론 하동을 찾는 관광객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찻잎마술이 내놓은 녹차 밥상은 담백한 맛이 일품인 ‘고운비빔밥’, 고운 선생의 시 ‘호중별유천’에서 착안한 ‘별천지편’, 녹차 소스와 표고버섯을 활용한 ‘토끼봉 달빛’, 매화와 토종매실을 결합한 ‘하동느낌’ 등 4가지.

먼저 고운비빔밥은 통일신라 시대 지리산 화개골에 머문 고운 최치원 선생이 초근목피(草根木皮)를 먹고 살았을 모습을 상상하며 만든 담백한 비빔밥이다.

이 비빔밥은 통들깨·제철푸른채소·우엉조림·무나물·도토리묵가루 등 계절별로 다르게 들어가는 재료에 녹차씨앗과 청국장으로 담긴 집 간장을 비벼 먹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별천지편은 ‘동쪽 나라 화개동을 속세



하동군 화개면 용강마을 ‘정소암의 찻잎마술’이 녹차 등 식재료로 ‘알프스 녹차 밥상’을 개발해 지역민은 물론 하동을 찾는 관광객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를 떠난 별천지와 같다’라는 한 고운 선생의 시를 활용해 만든 메뉴로, 통삼겹살에 녹차소스와 찻잎을 넣어 조리된 점으로 달콤 짭짤한 풍미가 일품이다.

토끼봉 달빛은 5월 중순이면 새벽 4시에 달빛을 보며 토끼봉으로 불나물을 뜯으러 간 화개사람들을 떠올리며 만든 메뉴로, 녹차 소스와 녹차 오일에 표고버섯을 구워 마늘과 곁들여 먹는 고소한 주역

의 표고버섯 달밥이다.

마지막으로 하동느낌은 6월 말 수확한 토종매실을 녹차꽃 효소에 담가 흰 밥 위에 올린 매실 초밥으로, 와사비 대신 들이간 녹차스프레드와 매실의 궁합이 잘 어울려 상큼한 맛을 내는 별식이

다. 찻잎마술은 4종의 메뉴 외에 광양제철소가 생기기 전 남해바다에서 많이 생

산된 해우(김의 사투리)에다 새우와 땅속에 묻어 둔 밥을 깎아 넣어 먹었던 해주국(김국)에 착안해 뜨거운 국물을 원하는 고객을 위한 추천메뉴로 ‘어화동등 해주국’을 개발해 선보이고 있다.

그리고 정소암 대표가 비빔, 강물, 풍경에 반해 섬진강 배리길을 걷다가 생각해 낸 메뉴로, ‘섬진강 명물’ 재첩을 재료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재첩 사브사브 ‘섬진강 알츠’도 내놨다.

이들 식사메뉴는 모두 녹차를 활용한 차꽃 와인과 차씨 오일, 차꽃집이 함께 제공되며, 식사 후 개인취향에 따라 손뽀음차, 전통재삼, 백차, 차공차, 유아객살 등의 차류도 선택할 수 있다.

찻잎마술은 녹차 음식과 차류 외에 차꽃을 숙성한 와인, 차씨를 추출한 오일, 아름다운 녹차꽃에서 추출한 꿀 차꽃집(차꽃蜜), 3년을 숙성시킨 녹차꽃으로 만든 천연발효 차꽃 식초도 개발해 판매한다.

정소암 대표는 “화개동은 시진평 중국 국가주석이 고운 최치원 선생의 시 ‘호중별유천’을 인용할 정도로 고운 선생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차가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된 만큼 이를 먹거리로 상품화하고자 녹차 밥상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이명석 기자

22.5 X 17.0 cm

건강+ 품격있는 ‘알프스 녹차 밥상’ 드세요~

하동 ‘정소암의 찻잎마술’ 녹차·최치원 활용 메뉴 개발 선포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우리나라 차 시배지 **하동** 화개동에서 명품 **하동** 녹차와 시(詩) ‘호리병 속의 별천지’로 유명한 고운 최치원을 활용한 ‘알프스 녹차 밥상’이 선보여 눈길을 끈다.

12일 **하동**군 화개면에 따르면 용강마을 ‘정소암의 찻잎마술(대표 정소암)’이 최근 녹차 등을 식재료로 ‘알프스 녹차 밥상’을 개발해 지역민은 물론 **하동**을 찾는 관광객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찻잎마술이 내놓은 녹차 밥상은 담백한 맛이 일품인 ‘고운비빔밥’, 고운 선생의 시 ‘호중별유천’에서 착안한 ‘별천지찜’, 녹차 소스와 표고버섯을 활용한 ‘토끼봉 달빛’, 매화와 토종매실을 결합한 ‘**하동**느낌’ 등 4가지다.

먼저 고운비빔밥은 통일신라시대 지리산 화개굴에 머문 고운 최치원 선생이 초근목피(草根本皮)를 먹고 살았을 모습을 상상하며 만든 담백한 비빔밥이다.

이 비빔밥은 통들깨·제철푸른채소·우영조림·무나물·도토리묵가루 등 계절별로

다르게 들어가는 재료에 녹차씨앗과 청국장으로 담근 집 간장을 비벼 먹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별천지찜은 ‘동쪽 나라 화개동을 속세를 떠난 별천지와 같다’라는 한 고운 선생의 시를 활용해 만든 메뉴로, 통삼겹살에 녹차 소스와 찻잎을 넣어 조린 찜으로 달콤 짭짤한 풍미가 일품이다.

토끼봉 달빛은 5월 중순이면 새벽 4시에 달빛을 보며 토끼봉으로 봄나물을 뜯으러 간 화개사람들을 떠올리며 만든 메뉴로, 녹차 소스와 녹차 오일에 표고버섯을 구어 마늘과 곁들여 먹는 고소한 추억의 표고버섯 덮밥이다.

마지막으로 **하동**느낌은 6월 말 수확한 토종매실을 녹차꽃 효소에 담가 흰밥 위에 올린 매실 초밥으로, 외사비 대신 들어간 녹차스프레드와 매실의 궁합이 잘 어울려 상큼한 맛을 내는 별식이다.

이들 식사메뉴는 모두 녹차를 활용한 차꽃 와인과 차씨 오일, 차꽃진이 함께 제공된다.



찻잎마술은 녹차 음식과 차류 외에 차꽃을 숙성한 와인, 차씨를 추출한 오일, 아름다운 녹차꽃에서 추출한 꿀 차꽃진(차꽃眞), 3년을 숙성시킨 녹차꽃으로 만든 천연 발효 차꽃 식초도 개발해 판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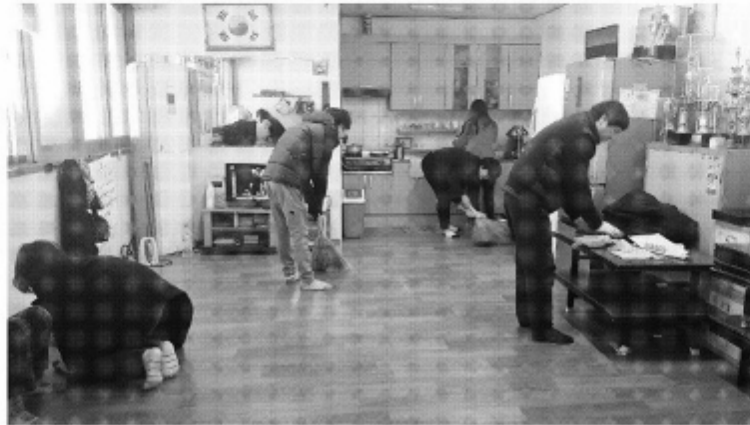
정소암 대표는 “화개동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고운 최치원 선생의 시 ‘호중별유천’을 인용할 정도로 고운 선생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차가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된 만큼 이를 먹거리로 상품화하고자 녹차 밥상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유태섭기자

17.8 X 13.5 cm

아름답고 향기로운 화개골 가꾸기 ‘호응’

하동 화개면사무소, 매주 취약계층·경로당 봉사활동



하동 화개면 직원들이 매주 목요일 취약계층·경로당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호리병 속의 별천지’ 하동군 화개면 직원들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화개골 가꾸기 일환으로 매주 목요일 관내 취약계층과 경로당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펼쳐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직원들의 봉사활동은 거동이 불편해 청소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와 고령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의 환경정비를 통해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공간을 제공하고 민민의 복지체감을 높이고자 특수시책으로 시행되고 있다.

화개면은 지난달 신흥마을에서 홀로 사는 78세 어르신을 시작으로 상덕마을 중증 지체장애인, 범왕마을 70대 노부와 해당 마을 경로당 등 6곳을 찾아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지난 8일 범왕마을 최모(77) 어르신

부부 댁에서 진행된 봉사활동에는 명영순 적십자봉사회 회장을 비롯한 봉사단체 회원 5명과 공무원 10명이 참여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들은 이날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어르신이 생활하는 노부부 댁을 방문해 방·거실·부엌·화장실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집 주변에 나뒹구는 각종 쓰레기 등을 말끔하게 수거했다.

이어 같은 마을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시설 내부 청소는 물론 재활용품 분리, 경로당 주변의 폐기물 수거, 시설물 정비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어르신들은 “바쁜 업무 중에도 거동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경로당을 찾아 청소도 해주고 말벗도 돼 주니 고맙고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명석 기자

11.1 X 19.4 cm

아름답고 향기로운 화개골 가꾸기 앞장 하동군 화개면 직원 경로당 주거 환경개선

하동군 화개면 직원들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화개골 가꾸기 일환으로 매주 목요일 지역 취약계층과 경로당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펼쳐 호응을 얻고 있다.

직원들의 봉사활동은 평소 거동이 불편해 청소 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와 고령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의 환경정비를 통해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공간을 제공하고 민민의 복지체감을 높이고자 특수시책으로 시행되고 있다.

화개면은 이의 일환으로 지난달 신흥마을에서 홀로 사는 78세 어르신을 시작으로 상덕마을 중증 지체장애인, 범왕마을 70대 노부부와 해당 마을 경로당 등 6곳을 찾아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지난 8일 범왕마을 최모 어르신(77) 부부 댁에서 진행된 봉사활동에는 명영순 적십자봉사회 회장을 비롯한 봉사단체 회원 5명과 공무원 10명이 참여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어 같은 마을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시설 내부 청소는 물론 재활용품 분리, 경로당 주변의 폐기물 수거, 시설물 정비 등의 봉사



하동군 화개면 직원들이 매주 목요일 지역 취약계층과 경로당을 대상으로 환경정비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활동을 펼쳤다.

어르신들은 "평소 바쁜 업무 중에도 거동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경로당을 찾아 청소도 해주고 말벗도 해주니 고맙고 행복하다"고 말했다.

최치용 면장은 "면 직원의 작은 실천이 촉매제

가 돼 앞으로 사회봉사단체도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아름답고 향기로운 행복화개 조성에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며 "이웃을 돌보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문석 기자

20.9 X 11.4 cm

하동 화개면, 취약계층·경로당 봉사활동



하동군 화개면 직원들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화개골 가꾸기 일환으로 매주 목요일 관내 취약계층과 경로당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을 펼쳐 호응을 얻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8일 범왕마을 최모(77) 어르신 부부 댁에서 진행된 봉사활동에는 명영순 적십자봉사회 회장을 비롯한 봉사단체 회원 5명과 공무원 10명이 참여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어르신이 생활하는 노부부 댁을 방문해 방·거실·부엌·화장실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집 주변에 나뒹구는 각종 쓰레기 등을 말끔하게 수거했다.

이어 같은 마을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시설 내부 청소는 물론 재활용품 분리, 경로당 주변의 폐기물 수거, 시설물 정비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유태섭기자

11.9 X 7.9 cm

하동군 화개면사무소 직원 취약계층·경로당 봉사활동

‘호리병 속의 별천지’ 하동군 화개면 직원들이 이롭답고 향기로운 화개골 가꾸기 일환으로 매주 목요일 관내 취약계층과 경로당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펼쳐 호응을 얻고 있다.

직원들의 봉사활동은 평소 거동이 불편해 청소가 어려움을 겪는 세대와 고령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의 환경정비를 통해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공간을 제공하고 민민의 복지체감을 높이고자 특수시책으로 시행되고 있다.

화개면은 이의 일환으로 지난달 신흥마을에서 홀로 사는 78세 어르신을 시작으로 삼덕마을 중증지체장애인, 범왕마을 70대 노부부와 해당 마을경로당 등 6곳을 찾아 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11일 전했다.



범왕마을 최모(77) 어르신 부부대에서 진행된 봉사활동에는 명영순 적십자봉사회 회장을 비롯한 봉사단체 회원 5명과 공무원 10명이 참여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들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어르신이 생활하는 노부부 덕을 방문해 방·거실·부엌·화장실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집 주변에 나뭇구는 각종 쓰레기 등을 깔끔하게 수거했다.

이들은 이어 같은 마을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시설 내부 청소는 물론 재활용품 분리, 경로당 주변의 폐기물 수거, 시설물 정비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어르신들은 “평소 바쁜 업무 중에도 거동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경로당을 찾아 청소도 해주고 말벗도 되어주니 고맙고 행복하다”고 말했다.

/여두화 기자

5.8 X 26.5 cm

매주 목요일 행복을 나누는 날

하동군 화개면, 취약계층·경로당 대상 봉사 활동

‘호리병 속의 별천지’ 하동군 화개면 직원들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화개꽃 가꾸기 일환으로 매주 목요일 취약계층과 경로당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펼쳐 호응을 얻고 있다.

직원들의 봉사활동은 평소 거동이 불편해 청소가 어려움을 겪는 세대와 고령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의 환경정비를 통해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공간을 제공하고 민의 복지체감을 높이고자 특수시책으로 시행되고 있다.

화개면은 이의 일환으로 지난달 신흥마을에서 홀로 사는 78세 어르신을 시작으로 상덕마을 중증 지체장애인, 범왕마을 70대 노부와 해당 마을경로당 등 6곳을 찾아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지난 8일 범왕마을 최모(77) 어르신 부부댁에서 진행된 봉사활동에는 명영순 적십자 봉사회 회장을 비롯한 봉사단체 회원 5명과 공무원 10명이 참여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들은 이날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어르신이 생활하는 노부부 댁을 방문해 방·거실·부엌·화장실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집 주변에 나뒹구는 각종 쓰레기 등을 말끔하게



수거했다.

이들은 이어 같은 마을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시설 내부 청소는 물론 재활용품 분리, 경로당 주변의 폐기물 수거, 시설물 정비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어르신들은 “평소 바쁜 업무 중에도 거동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경로당을 찾아 청소도 해주고 말벗도 되어주니 고맙고 행복하

다”고 말했다.

최치용 면장은 “면 직원의 작은 실천이 촉매제가 돼 앞으로 사회봉사단체도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아름답고 향기로운 행복 화개 조성에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며 “이웃을 돌보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최두열기자

21.4 X 17.3 cm

“우리 모두 ‘학교폭력’ 멈춰요”

전교생 대상...학교폭력 결의 캠페인 펼쳐

하동 쌍계초등학교는 12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폭력 ‘멈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화개파출소와 협조해 전교생과 교직원들이 참여했다.

이어 ‘학교 폭력 멈춰 캠페인’ 동참 결의문을 낭독하고 쌍계무료주차장까지 가두행진을 실시했다.

학생들은 학교폭력 멈춰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학교 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만들었다.

학교측은 인성교육 실천주간과 친구사랑주간을 맞아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연계해 학급생활 규칙정하기, 바른말 고운말 쓰기 운동을 실시했다. /여두희 기자



하동 쌍계초등학교는 12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폭력 ‘멈춰’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은 이날 캠페인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1.9 X 14.9 cm

한 대행 “축제도 안전이 최우선”

봄축제 안전관리 특별점검 당부 성동조선 등 고용안정대책 지시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이 12일 봄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라고 특별지시했다.

한 대행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봄 축제에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축제를 주관하는 시·군에서 1차적으로 점검하겠지만, 대형 축제에 대해서는 도의 담당부서와 감사관실이 직접 현장에 나가 안전을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4월 개통하는 사천바다케이블카의 안전도 특별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내에서는 17일 원동매화축제를 시작으로 진해군항제, 화개장터 벚꽃 축제, 창원진동미더덕 축제, 창녕 낙동강 유채축제, 황매산철쭉제, 하동야생차문화축제 등 20개 유명 봄 축제가 연

이어 열린다. 사천바다케이블카는 다음달 13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대규모 구조조정을 앞둔 STX 조선해양과 성동조선에 대해서도 고용안정을 위한 특별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한 대행은 “성동조선의 법정관리가 결정되면서 지역의 고용불안이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존의 고용 안정 대책을 보완·확대하고, 새로운 고용정책도 적극 개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한편 중앙부처 등에서 도에 파견한 3명의 협력관도 간부회의 참여하여 조정 협조를 강화한다. 현재 도청에는 법제처 장학기 법제협력관, 한국은행 신현열 경제정책 자문관, 금융감독원 정신동 금융정책자문관이 정책자문과 협력을 위해 파견나와 있다.

이홍구기자 red29@gnews.co.kr

11.7 X 12.9 cm

경남도, 봄 축제 안전관리 강화한다

STX 조선·성동조선 고용안정

“경남 봄 축제 안전관리 강화”

한경호 대행 간부회의 특별지시

한경호 경남지사 권한대행은 12일 간부 회의에서 봄 축제 안전관리와 STX 조선해양과 성동조선 관련 고용안정 강화 등을 특별히 강조했다.

한 대행은 우선 “봄 축제에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형 축제는 도의 담당부서와 감사관실이 직접 현장에 나가 안전을 점검하고 특히 4월 개통하는 사천바다케이블카의 안전상태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경남에는 오는 17일 원동매화축제를 시작으로 전해군항제, 화개장터 벚꽃축제, 창원진동미더덕 축제, 창녕 낙동강 유채 축제, 황매산철쭉제, 하동야생차문화축제 등 5월까지 전국적 명성을 가진 20개 유명 축제가 잇따라 열린다.

4월 13일부터 운영을 시작하는 사천바다케이블카는 전체 길이 2.43km(해상구간 816m)로 케이블카 45대 중 15대 바닥을 투명 유리로 만들어 한려수도를 고공에서 바라보는 아찔한 체험을 할 수 있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견되는 STX 조선해양과 성동조선에 대해서도 고용안정을



경남도 간부회의

위한 특별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한 대행은 “성동조선의 법정관리 등이 결정되면서 지역의 고용불안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존의 고용안정 대책을 보완·확대하고, 새로운 고용정책도 적극 개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중앙부처 등에서 파견된 3명의 협력관이 간부회의에 나와 도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의사를 피력했다.

법제처에서 파견 나온 장학기 법제협력관(62년생, 서기관)과 한국은행에서 파견 나온 신현열 경제정책 자문관(68년생, 3급 상당 국장급), 금융감독원에서 파견 나온

정신동 금융정책자문관(66년생, 3급 상당 국장급)은 1년 동안 각 전문분야에서 경남도의 정책을 자문하고 소속기관과의 협력 업무 등을 맡는다.

한 대행은 “금감원 정신동 국장은 금감원 위싱턴사무소장 등을 거쳤고, 신현열 국장은 한국은행 안정분석팀장을 거쳤으며, 장학기 법제협력관은 긴 시간 법제처의 요직을 거치는 등 3분의 협력관이 모두 자기 분야의 베테랑”이라며 “각 분야 자문은 물론 적극적인 정책제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3명의 협력관은 매주 간부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김소현기자
17.8 X 16.4 cm

道 봄 축제 안전관리 강화한다

3월 17일 원동매화축제 시작으로 ‘진해군항제 등 20개 도내 축제’ 12일 간부회의에 중앙부처 등에서 파견 나온 3명의 협력관도 참여 “봄 축제 안전관리와 STX 조선해양과 성동조선 관련 고용안정 강화”

한경호 권한대행은 12일 간부회의에서 봄 축제 안전관리, STX 조선해양과 성동조선 관련 고용안정 강화 등을 특별히 강조했다.

한 대행은 먼저 “봄 축제에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축제를 주관하는 시·군에서 1차적으로 점검하겠지만, 대형 축제에 대해서는 도의

담당부서와 감사관실이 직접 현장에 나가 안전을 점검하라. 4월 개통하는 사천바다 케이블카의 안전도 특별히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현재 경남도에는 3월 17일 원동매화축제를 시작으로 진해군항제, 화개장터 뱃꽃 축제, 창원진동미더덕 축제, 창녕 낙동강 유채축제, 황매산월쪽제, 하동야생치문화

축제 등 5월까지 전국적 명성을 가진 20개 유명 축제가 연이어 열린다.

오는 4월 13일부터 운영을 시작하는 사천바다케이블카는 전체 길이 2.43km(해상 구간 816m)로 589억원을 들여 만들었으며, 케이블카 45대 중 15대 바닥을 투명 유리로 만들어 한려수도를 고공에서 바라보는 아찔한 체험을 할 수 있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견되는 STX 조선해양과 성동조선에 대해서도 고용안정을 위한 특별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한 대행은 “성동조선의 법정관리 등이 결정되면서 지역의 고용불안이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존의 고용안정 대책을 보완·확대하고, 새로운 고용정책도 적극 개발할 수 있도록

촉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중앙부처 등에서 도에서 파견된 3명의 협력관이 간부회의에 나와 도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법제처에서 파견 나온 장학기 법제협력관(62년생·서기관), 한국은행에서 파견 나온 신현열 경제정책 자문관(68년생·3급 상당 국장급), 금융감독원에서 파견 나온 정신동 금융정책자문관(66년생·3급 상당 국장급)은 1년 동안 각 전문분야에서 경남도의 정책을 자문하고 소속기관과의 협력 업무 등을 추진하게 된다.

한 대행은 “금융원 정신동 국장은 금감원 워싱턴사무소장 등을 거쳤고, 신현열 국장은 한국은행 안정분석팀장을 거쳤으며, 장학기 법제협력관은 긴 시간 법제처의 요직을 거치는 등 3분의 협력관이 모두 자기 분야의 베테랑이다. 각 분야 자문은 물론 적극적인 정책제안을 기대한다”며 협력관들의 적극적인 도정 참여를 당부했다.

3명의 협력관은 매주 간부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조윤경·여환수·박종국·여두희 기자

24.0 X 14.6 cm

경남도 봄 축제 안전관리·조선 고용안정 강화

한대행 “담당부서·감사관실이 직접 현장점검하라”

한경호 권한대행은 12일 간부 회의에서 봄 축제 안전관리, STX 조선해양과 성동조선 관련 고용 안정 강화 등을 특별히 강조했다.

한 대행은 먼저 “봄 축제에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축제를 주관하는 시·군에서 1차적으로 점검하겠지만, 대형 축제에 대해서는 도의 담당부서와 감사관실이 직접 현장에 나가 안전을 점검하라. 4월 개통하는 사천바다케이블카의 안전도 특별히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현재 경남도에는 3월 17일 원동매화축제를 시작으로 진해군항

제, 화개장터 벚꽃축제, 창원진동미더덕 축제, 창원 낙동강 유채축제, 황매산철쭉제, 하동야생차문화축제 등 5월까지 전국적 명성을 가진 20개 유명 축제가 연이어 열린다.

오는 4월 13일부터 운영을 시작하는 사천바다케이블카는 전체 길이 2.43km(해상구간 816m)로 589억원을 들여 만들었으며, 케이블카 45대 중 15대 바다를 투명 유리로 만들어 한려수도를 고공에서 바라보는 아찔한 체험을 할 수 있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고되는 STX 조선해양과 성동조선에 대

해서도 고용안정을 위한 특별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한 대행은 “성동조선의 법정관리 등이 결정되면서 지역의 고용 불안이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존의 고용안정 대책을 보완·확대하고 새로운 고용정책도 적극 개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중앙부처 등에서 도에서 파견된 3명의 협력관이 간부회의에 나와 도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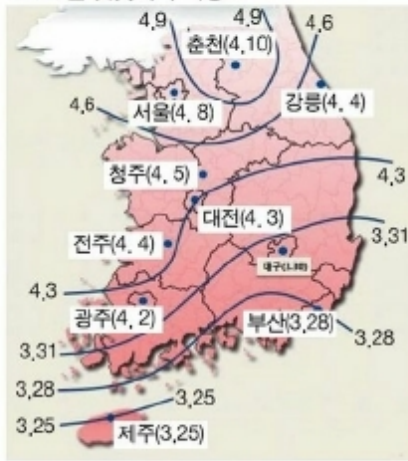
법제처에서 파견 나온 장학기 법제협력관(62년생, 서기관), 한

국은행에서 파견 나온 신현열 경제정책 자문관(68년생, 3급 상당 국장급), 금융감독원에서 파견 나온 정신동 금융정책자문관(66년생, 3급 상당 국장급)은 1년 동안 각 전문분야에서 경남도의 정책을 자문하고 소속기관과의 협력업무 등을 추진하게 된다.

한 대행은 “금융원 정신동 국장은 금감원 위싱턴사무소장 등을 거쳤고, 신현열 국장은 한국은행 안정분석팀장을 거쳤으며, 장학기 법제협력관은 긴 시간 법제처의 요직을 거치는 등 3분의 협력관이 모두 자기 분야의 베테랑이다. 각 분야 자문은 물론 적극적인 정책제안을 기대한다”며 협력관들의 적극적인 도정 참여를 당부했다. 3명의 협력관은 매주 간부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송고홍기자**

20.0 X 11.6 cm

2018년 벚꽃개화 예상도



진해 여좌천 벚꽃 26일 꽃망울 '톡톡'

국내 대표적인 벚꽃 명소인 진해 여좌천의 벚꽃은 오는 26일부터 꽃망울을 터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기상사업체 케이웨더에 따르면 올해 벚꽃 개화 시기는 오는 25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남부지방은 28일~4월 4일, 중부지방은 4월 3일~10일께로 예상된다. 경남의 경우 진해 여좌천(26일)에 이어 하동 쌍계사 십리벚꽃길에서는 오는 31일 꽃망울이 터질 것으로 전망된다.

벚꽃 절정 시기는 개화 후 만개까지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 것을 고려할 때 제주도 4월 1일, 남부지방 4월 4~11일, 중부지방 4월 10~17일로 예상된다.

벚꽃 개화 시기는 2월과 3월의 기온에 큰 영향을 받는데 지난겨울은 대체로 상층의 찬 공기를 동반한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북극의 한기가 우리나라 부근까지 남하하며 한파가 빈번히 나타나 평년보다 낮은 기온